

SUN	MON	TUE	WED	THU
			1 (/) °C	2 (/) °C
5 (/) °C	6 (/) °C	7 (/) °C	8 (/) °C	9 (/) °C
12 (/) °C	13 (/) °C	14 (/) °C	15 (/) °C	16 (/) °C
19 (/) °C	20 (/) °C	21 (/) °C	22 (/) °C	23 (/) °C
26 (/) °C	27 (/) °C	28 (/) °C	29 (/) °C	30 (/) °C

FRI	SAT	이달의 체크 포인트
3 (/) °C	4 (/) °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온변화 : 기온은 증가 추세이나, 강수량은 감소추세이고, 일사량은 증가추세 → 습윤위조 주의 G 관리 : 고온기 그린팬 활용, 소량 다회 간헐적 부분 인력관수, 얇은 배토 후 관수 T/F 갱신 : 한지형 - 과습지 위주 무공통기, 난지형 - 밀도향상 및 토양 갱신 시비관리 : 한지형 - 질소 최소, 기능성 소재 엽면시비, 난지형 - 복합비료 시비) * 생조제 사용 잡초관리 : 화분과, 광엽 등 발생한 잡초에 대한 경엽처리, 새포아폴 고사 주의, 고온 약해 주의 시약관리 : 한지형 - 고온기 병해 집중 관리, 난지형 - 라지패치 지속 예방, 그린 - 조류방제
10 (/) °C	11 (/) °C	
17 (/) °C	18 (/) °C	
24 (/) °C	25 (/) °C	
31 (/) °C		
MEMO		

▲ : 침엽수 | ● : 활엽수 | G : 그린 | T : 티 | C : 칼라 | F : 페어웨이 < 본 일정은 경기, 중부 지방을 기준으로 작성됨 >

장마기 전 그린관리 방안

- 한지형잔디 5월부터 질소비료 감소(국내 여름장마 등 지속에 따른 옷자람 발생과 잔디 조직 약화로 병발생 및 답압 피해 증가)
- 성분별 시비 방법 : 질소는 아미노산, 유산 등의 엽면시비로 최소량 공급 (주 1회) 인산, 칼륨, 칼슘 등 잔디 조직 강화와 철분, 마그네슘 등 광합성 관련 성분 증량
- 장마 전, 과습지 위주 무공통기, 슬라이싱 등으로 표면 및 수직 배수성 확보
- 생장조절제 : 옷자람 방지와 작업량 감소, 환경 스트레스 내성 증대

※ 추천제품 : 칸바지, 아미노퓨어, 바이오마스타, 슈퍼파라오, 그린시아, 지아인트UV, 리브타프 등

피시움 블라이트/루트랏 (Pythium spp.)



- 봄-가을, 잔디 전 생육기에 걸쳐 발생
- 주기적인 예방 시약 필수
- 수매성 전염(물길에 의한 확산)이 특징으로 배수관리 중요

※ 추천약제 : 푸레존엑스트라, 퀴텐, 볼레로, 헤리티지액션, 미리카트 (비가닝, 파인드), 섀방, 명작 등

쌔머패치



- 토양 온도 18도 정도부터 병원균 활동 시작
- 잔디의 뿌리에 발생하는 병
- 여름철 병반 발생 시, 치료가 매우 어려워 예방시약 매우 중요
- 예방방제 시 토양까지 약제가 내려갈 수 있도록 충분한 후관수 필수
- 토양 이동성이 비교적 높은 약제 (테부코나졸과 아족시스트로빈 등) 시약 추천

※ 추천약제 : 아레스, 골든볼, 헤리티지액션, 유니폼, 굿츠이스, 트위터, 칸투스, 오리우스 등

탄저병



- 하절기 한지형잔디에 주로 발생하였으나, 25년 3월 남부지역부터 순차적 탄저병 발생 관찰
- 서늘하고 습한 기후에서는 지체부의 줄기 썩음 증상 발현 후, 곧 검게 변색되어 활화 및 고사
- 고온다습하며 토양이 건조할 때, 오래된 하엽에 쉽게 감염
- 잎의 병반은 타원형의 적갈색으로 나타나며 이후 갈색으로 고사

※ 추천약제 : 골든볼, 질록엔, 굿츠이스, 유니폼, 트위터, 헤리티지액션, 아레스, 오리우스 등

노균병



- 기온이 10°C-20°C로 서늘하고 습도가 높을 때 주로 발생
- 이른 봄 및 늦가을과 같이 온도 차가 크고 이슬이 많은 시기
- 배수 불량지에서 상습 발생. 과습한 지역일수록 병 발생률 증가
- 병징 발생 시, 약제 살포로 병원균 방제에도 증상 회복 불가

*산재적 예방만이 유일한 해결책

※ 추천약제 : 볼레로, 퀴텐, 유니폼, 헤리티지액션, 미리카트 (파인드, 비가닝), 섀방, 명작 등

풍뎅이 & 굼벵이 & 왕바구미



- 생활사**
 - 보통 6-8월 고미 후 산란하며 1년 1세대
 - 월동 기체의 활동이 5-9월 진행
- 진디 피해**
 - 성충보다 유충(굼벵이)가 지하부 피해
 - 뿌리 식해 → 건조와 비수, 잔디가 쉽게 들림
 - 조류, 두더지, 멧돼지 등 2차 피해 유발
- 방제법**
 - 유충 발생 시기에 토양 처리 (1-2명 시방제 효과 우수, 3명 이후 효과 미비)

※ 추천약제 : 코세이어, 랜드마스타, 바이스타, 사이렌, 플래그십

SUN	MON	TUE	WED	THU
		1 (/) °C	2 (/) °C	3 (/) °C
6 (/) °C	7 (/) °C	8 (/) °C	9 (/) °C	10 (/) °C
13 (/) °C	14 (/) °C	15 (/) °C	16 (/) °C	17 (/) °C
20 (/) °C	21 (/) °C	22 (/) °C	23 (/) °C	24 (/) °C
27 (/) °C	28 (/) °C	29 (/) °C	30 (/) °C	

FRI	SAT	이달의 체크 포인트
4 (/) °C	5 (/) °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온변화 : 기온 및 강수량은 증가추세이나, 일사량은 감소추세 → 습윤위조 주의 고온 지속 및 가을장마 여부 예의 주시 : 24-25년도 열대야 10월까지 지속 G 갱신 : 뿌리발육 개선 무공통기 T/F : 과습지 가스치환, 태풍 및 늦장마 대비 슬라이싱 시비관리 : 한지형 - 생육위한 액비, 회복위한 기능성 엽면시비, 난지형 - 휴면 대비 복합비 잡초관리 : 새포아풀 발아전 또는 개화전 경엽처리, 월년생 잡초 방제 시약관리 : 한지형 - 온도하강 및 과습시기 병해 관리, 난지형 - 라지패치, 노균병 예방 한지형 잔디 오버시딩 실시
11 (/) °C	12 (/) °C	MEMO
18 (/) °C	19 (/) °C	
25 (/) °C	26 (/) °C	

▲ : 침엽수 | ● : 활엽수 | G : 그린 | T : 티 | C : 칼라 | F : 페어웨이

가을 장마 관리

- 열대야의 연장과 장마일수 증가 추세로 잔디 회복 지연 또는 불가
- 강우 후 무리한 잔디 관리 장비의 코스 진입 지양
- 과습지역, 맨홀 주변 등 부분 통기(수분축정기 상대가 활용)
- 열대야 해소까지 엽면시비 위주 진행, 이후 새뿌리의 5cm 성장 확인 후 속효성 및 완효성 비료 시비
- 생장조절제 : 웃자람 방지와 작업량 감소, 환경스트레스 내성 증대

※ 추천제품 : 이미노퓨어65, 이미노업, 그린시아, 루츠그로우

발아 전 및 경엽처리제 살포



- 경엽처리제는 발아 후 잡초를 시들게 하는 타입으로 잡초가 지나치게 커진 뒤에는 효력이 떨어진다. 토양처리제는 잡초 종자의 발아를 억제시키는 타입으로 장기간 효력이 유지되지만 이미 발아한 잡초에는 효력이 없다. 제초제로서는 토양처리제가 더 좋다. 여름잡초와 겨울잡초가 발아하기 전(9-10월) 이상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

※ 추천약제 : 아골드, 터프엔, 크린샷, 디멘존, 패넌트매그넬, 커빅스디

피시움(Pythium spp.)



- 봄-가을, 잔디 전 생육기에 걸쳐 발생
- 주기적인 예방 시약 필수
- 수매성 전염(물길에 의한 확산)이 특징으로 배수관리 중요

※ 추천약제 : 푸레존엑스트라, 퀴텍, 블레로, 헤리티지액션, 미라카트(비기닝, 파인더), 섀방, 명작 등

라지패치, 네크로티킹스팟



- 최저 발병 온도 20°C-25°C에서 주로 발생
- 가을에 침입한 병원균은 월동해 이듬해 봄에 발병하므로 이상기후로 인한 10월과 같은 기후 지속 시, 추가 예방시약 추천

※ 추천약제 : 굿초이스, 그린팡, 그레탐, 오리우스, 이수리, 다버디 등

노균병



- 기온이 10°C-20°C로 서늘하고 습도가 높을 때 주로 발생
- 이른봄 및 늦가을과 같이 온도차가 크고 이슬이 많은 시기
- 배수 불량지에서 상습 발생. 과습한 지역일수록 병발생률 증가
- 병징 발생 시, 약제실포로 병원균 방제해도 증상 회복 불가

※ 추천약제 : 유니폼, 퀴텍, 비기닝(미라카트, 파인더), 섀방, 명작, 헤리티지액션 등

잔디혹응애



- 생활사
 - 4-10월 출현(6월-휴면기까지)
 - 잔디잎 밑에 그속에서 서식하며 잔디잎 흡즙
- 잔디 피해
 - 잔디 엽색이 연녹색화
 - 잔디잎 절반이 밀려있음
- 방제법
 - 예방적 시약 필요
 - 예지 후 시약하며, 예지물은 수거하여 따로 처리

※ 추천약제 : 잔디 고시 없음, 바이스타(응애 효과)

